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11. 17(금), 15:00 ~ 18:00
- 장 소 : 도청 본관 소회의실2
- 출석위원 :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8건

1	「진주 허추 부부 묘 석물」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2	「김하 여여정사 지장보살본원경」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3	「고성 옥천사 제석천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4	「고성 옥천사 연대암 지장시왕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5	「고성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6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7	「고성 옥천사 아미타불회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8	「강세황 유묵」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검토사항】 16건

1	「구포복설상소문」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2	「양산 신흥사 보현보살상 복장유물」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3	「고성 하명상 묘 석물」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4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5	「김해 바라밀선원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6	「합천 법연사 육경합부」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7	「합천 법연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8	「의령 설외 안도 효자 정려비」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9	「청파집 목판」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0	「상곡마씨 교지」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1	「창원 보은사 청자발우」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2	「반야바라밀다심경판」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3	「창원 해림사 발형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4	「하동 산불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5	「창원 향용사 목자석가모니불상」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6	「밀양 수덕사 불화」 문화재 지정 신청	(공개)

1. 진주 허추 부부 묘 석물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진주 허추 부부 묘 석물」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진주 허추 부부 묘 석물」 16세기 진주지역 묘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허○○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 허추 부부 묘 석물
 - 소재지 : 진주시 지수면 송산리
 - 수량 : 9기
 - 허추 묘 : 묘비 1기, 상석 1기, 망주석 1기, 향로석 1기
 - 진양강씨 묘 : 묘비 1기, 상석 1기, 망주석 2기, 향로석 1기
 - 시대 : 16세기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 허추 부부묘 석물들은 『世宗實錄』 「五禮儀」의 凶禮儀式 治葬조나 성종5년 (1474)에 편찬된 『國朝五禮儀』 喪禮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엄적 요소가 이채롭게 가미된 석물들이라는 점과 16세기 진주지역에 소재하는 특이한 묘제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허추 부부묘 석물들은 일반적인 사대부가 무덤의 석물들과는 다른 조선전기 임진왜란 이전의 喪禮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기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2. 김해 여여정사 지장보살본원경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김해 여여정사 지장보살본원경」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김해 여여정사 지장보살본원경」은 1558년에 인경된 경전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심○○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여여정사 지장보살본원경
 - 소 재 지 : 김해시 가야로
 - 수 량 : 1권
 - 시 대 : 1558년(명종 13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천(忉利天)에서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을 위하여 설법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장경」은 모두 당(唐)나라 법등(法燈)이 漢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료는 '1558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刊記)과 '석두사'라는 간행한 장소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책이다.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년) 이전'이라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임란 이전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귀중본으로서 '경남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향후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3. 고성 옥천사 제석천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옥천사 제석천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고성 옥천사 제석천도」은 18세기 화사 임평이 제작에 참여한 불화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 옥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옥천사 제석천도
 - 소재지 :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 수량 : 1점
 - 시대 : 1781년(건륭 46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 고성 옥천사 신중도는 화면 중앙에 의자에 앉은 형태의 제석천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묘사된 신중도 형식 및 배경에 5폭 병풍이 묘사된 것이라든지 천녀들이 보개와 일산을 쥐고 시립한 모습 등에서 18세기 신중도 양식의 일면을 잘 간직한 작품이다. 특히 화승 임평의 화풍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불화일 뿐만 아니라 신중도로서는 제법 앞선 시기인 1781년에 조성된 화격이 높은 불화이기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4. 고성 옥천사 연대암 지장시왕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지장시왕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지장시왕도」는 1732년 조성된 불화로서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 옥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옥천사 지장시왕도
 - 소재지 :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 수량 : 1점
 - 시대 : 1737년(건륭 2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 고성 옥천사 지장시왕도는 조선후기 불화로써 앞서는 시기에 해당되는 1737년에 조성된 불화이자 세부적인 표현기법 및 뛰어난 설채법 등을 보여주고 있는 화격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특히 18세기 전반의 지장시왕도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 불화를 제작한 화승들 또한 경상도 일원에서 활동한 새롭게 주목되는 화승들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자료 가치가 지대한 문화재이기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5. 고성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는 1849년에 제작된 불화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 옥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옥천사 지장시왕도
 - 소재지 :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 수량 : 1점
 - 시대 : 1849년(도광 29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김성수·김기화)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는 19세기 대표적인 화승인 천여가 직접 제작한 불화로 화면 구성 및 채색이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19세기 중반의 신중도 양식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이후에 제작되는 신중도의 모본적인 양식이기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6.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는 1898년 제작된 불화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 옥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옥천사 지장시왕도
 - 소재지 :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 수량 : 1점
 - 시대 : 1893년(광서 19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칠성도는 1893년에 제작되었지만 구도 및 필선과 채색에 있어서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안정되어 있는 작품이다. 특히 19세기 말에 흔히 제작된 칠성도와는 다르게 치성광여래와 칠여래 및 자미대제와 칠성군을 위아래로 각각 병풍 한 폭마다 배치하여 各部幀 형식을 취한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되는 칠성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을 하였던 수화승인 봉의가 그린 대표적인 칠성도이자 그의 독특한 화풍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기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7. 고성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고성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은 1899년 제작된 불화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성 옥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옥천사 지장시왕도
 - 소재지 :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 수량 : 1점
 - 시대 : 1893년(광서 19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19세기에 제작된 불화이지만 1899년이라는 불화 제작연대가 떨어지고 화격 또한 크게 높지 않은 관계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문화재자료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8. 강세황 유묵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강세황 유묵」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심의

나. 제안사유

- 「강세황 유묵」은 시.서.화 삼절로 불리우는 표암 강세황의 유묵으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
- (2) 대상문화재명 : 강세황 유묵
 - 소재지 : 밀양시 초동면 초동중앙로
 - 수량 : 1장
 - 시대 : 1790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작품의 제작 시기는 관서의 내용대로 1790년(경술년) 겨울이다. 이 해의 시현력을 보면 입동(立冬)이 10월 1일(음력)이므로 이 작품은 정확하게 179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써졌다고 할 수 있다. 강세황은 1791년 1월 23일에 서거하였으므로 이 작품은 2~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서예는 진주에 세거하는 진주강씨 은열공파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강덕룡의 부친에 관한 시를 담고 있기에 경상남도과 관련된 유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물 1680호 <<표암유채첩豹菴遺彩帖>>(경기도박물관 소장)과 함께 강세황의 가장 말년의 작품이라는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유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함.

마. 행정예고 : 2017. 7. 13 - 8. 11/제출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 가결 (유형문화재 지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 구포복설상소문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구포복설상소문」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구포복설상소문」은 1874년에 쓰여진 문서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시청
- (2) 대상문화재명 : 구포복설상소문
 - 소재지 : 양산시 북정로 78 양산시립박물관
 - 수량 : 12매
 - 시대 : 1874년(고종 11年)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구포복설상소문은 양산지역의 근대사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시대 지방 행정체계의 변화와 당시 지역 사람들이 향촌 질서와 경제 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와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변동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보존 상태 등이 양호하고 상소를 주도한 지역 인물, 당시 사정 등을 이해할 수 있어 지역사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상소문의 작성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 상소와 판결 시기가 8개월 사이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구포 환속 상서문”으로 명칭변경하여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2. 양산 신흥사 보현보살상 복장유물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양산 신흥사 보현보살상 복장유물」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양산 신흥사 보현보살상 복장유물」은 1682년 제작된 보현보살상 복장 유물로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양산 신흥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양산 신흥사 보현보살상 복장유물
 - 소재지 :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282-111
 - 수량 : 9건(후령통 일괄, 필서주서 다라니, 발원문, 묘법연화경 2, 불설아미타경 1, 목우자수심결 1,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1, 천로금강경 1)
 - 시대 : 조선중기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발원문을 통해 1682년 승호가 제작한 신흥사 보현보살상의 복장유물로 상태가 좋으며 전체 복장유물이 훼손 없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그 의의가 높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조각승 승호가 제작한 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복장유물로서 발원문과 후령통, 경전 등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 당시 불상 복장유물의 구성 및 특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복장유물을 통하여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처, 제작자, 시주자를 알 수 있어 당시 신앙·사상적 배경은 물론 복장의식 재현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재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다라니 종이 제외한 복장유물 지정)
 -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후 차기위원회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3. 고성 하명상 묘 석물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고성 하명상 묘 석물」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고성 하명상 묘 석물」은 기장현감을 지낸 하명상((河命祥, 1702~1774)의 묘에 설치된 석물로 18세기 지방양반의 묘제 석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하○○○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하명상 묘 석물
 - 소재지 :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 수량 : 11기
(월석 1, 혼유석 1, 상석 1, 고석 2, 향로석 1, 준상 1, 묘비<묘표> 1, 망주석 2, 장명등 1)
 - 시대 : 1774년(영조 50年)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하명상 묘역의 장명등은 화사석에 화창이 큰 형태로 고려적 요소가 보이는 아주 이례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장명등의 간주석에 2마리의 올라가는 쥐와 1마리의 내려가는 쥐의 형상은 대체로 망주석에 나타나는 형상들로 불설비유경(佛說譬喻經)에 나타나는 낮과 밤으로서의 흰 쥐와 검은 쥐로 해석한 바도 있다. 아울러 하명상 묘역 장명등에 표현된 연판문, 올림연꽃이 조각된 연화좌 등은 불교적 요소의 장식이다.

이처럼 하명상 묘역의 장명등은 규모 및 형식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양식의 장명등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단, 하명상 묘역에 설치된 월석(月石)의 사례도 흔한 예가 아니며, 묘표, 망주석, 향로석의 장식성도 훌륭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명등만을 별도로 지정하지 말고 하명상 묘역의 기타 석물도 함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묘역 내 석물 11기 유형문화재 지정
 - 유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4.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은 문화재적 가치가 불서로 판단되므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김해 금강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
 - 소 재 지 : 김해시 가야로 405번길 73-33
 - 수 량 : 1책
 - 시 대 : 1534년(중종 29)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김해 금강사 법화영험전은 '1534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刊記)과 '文殊寺'라는 간행한 장소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책이다.

본서는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이전에 간행된 책이지만 卷下의 17張부터 27張까지 본문하단에 훼손된 부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자료는 본문이 일부 훼손된 아쉬움이 있다. 또한 卷首題 아래에 승려가 아닌 俗人 도장(金榮珠? 印)이 藏書印의 기능으로 찍혀져 있다. 이른바 출처의 문제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요청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장경위에 대하여 상세한 소명자료 제출받은 후 심의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5. 김해 바라밀선원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김해 바라밀선원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김해 바라밀선원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해 바라밀선원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예수시왕생칠제의찬요
 - 소재지 : 김해시 분성로 3번길
 - 수량 : 1책
 - 시대 : 1632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은 조선 중기의 선승 대우(大愚)가 지은 예수재(預修齋)에 대한 불교의식집이다. 내용은 생전에 사후의 왕생을 빌고 닦는 의식이다. 이 자료는 '1632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刊記)과 '경상도 수암사'라는 간행 장소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책이다.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년)을 중심으로 보면, 임란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앞으로도 보존 및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후 심의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6. 합천 법연사 육경합부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합천 법연사 육경합부」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합천 법연사 육경합부」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데 바탕으로 삼는 대승 경전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합천 법연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육경합부
 - 소 재 지 :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 수 량 : 1책
 - 시 대 : 1488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六經合部』는 신자(信者)들이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데 바탕으로 삼는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지름길이 되는 「金剛經」을 위시하여 세인(世人)들이 많이 숭신(崇信)하고 독송(讀誦)하며 성불(成佛)을 발원하는 경들인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 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약칭: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약칭:능엄신주)」,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약칭:아미타경)」,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약칭:관세음보살보문품)」, 「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을 차례로 필서하여 합부한 것이다.

이 자료는 '1488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刊記)과 '화암사'라는 간행한 장소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책이다.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년)을 중심으로 보면, 임란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경남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앞으로도 보존 및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유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7. 합천 법연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불서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합천 법연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 소재지 :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62-1
 - 수량 : 1책
 - 시대 : 1484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를 중히 여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고려 초에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이래로, 여말선초(麗末鮮初) 이후로 급격한 간행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1484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刊記)과 ‘화암사’라는 간행한 장소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한 책이다.

귀중본의 기준이 되는 임진왜란(1592년)을 중심으로 보면, 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경남의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앞으로 보존 및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유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8. 의령 설피 안도 효자 정려비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의령 설피 안도 효자 정려비」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의령 설피 안도 효자정려비」는 1405년 조선초기 제작된 정려비로 추정되므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설피 탐진안씨 문중
- (2) 대상문화재명 : 효자 정려비
 - 소재지 :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 수량 : 1기
 - 시대 : 1405년 추정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이 비석은 안도(安堵)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영락(永樂) 3년(1405)에 정려가 내려질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려가 내려진 사실은 『교남지(嶠南誌)』 권75 창녕군 인물 효자 부분에 “안도(安堵). 관직은 우헌납을 지냈다. 모친상에 여묘를 살며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 태종조에 정려를 명하였다.[安堵 官右獻納 母喪廬墓泣血三年 太宗朝命旌]”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도의 정려비는 태조 7년(1398)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셋째 아들인 이종선(李鍾善)에게 내려진 효자 정려비(충남 유형문화재 제239호)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려 우왕 9년(1383)년에 문익점(文益漸)에게 내려진 효자 정려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교남지』의 기록과 다른 비석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의령 설피 안도의 정려비는 1405년에 세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세워진 점과 이종선의 정려비가 유형문화재에 지정된 사실에 근거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효자 정려비와 관련한 기록 등 보완 조사 후 재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9. 청파집 목판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청파집 목판」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진주지역 유학자인 청파 이륙의 「청파집 목판」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국립진주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명 : 청파집 목판
 - 소 재 지 : 진주시 남강로 626-35
 - 수 량 : 40매 79판
 - 시 대 : 1853년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청파집 목판은 1512년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1600년 초에 목활자로 다시 간행되었으나 서문과 발문이 없어 그 내력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1853년에 초간본을 보완하여 진주에서 다시 목판을 제작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은 1853년에 제작된 삼간본이다.

『靑坡集』은 조선 초기 진주에서 활동한 靑坡 李陸의 삶과 문학 및 학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문집은 경남의 문학사와 학술사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자료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판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연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0. 상곡마씨 교지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상곡마씨 교지」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상곡마씨 교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마○○○
- (2) 대상문화재명 : 상곡마씨 교지
 - 소 재 지 :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
 - 수 량 : 8점
 - 시 대 : 조선시대(19세기)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마하백 및 마두원의 고신교지는 중국 명나라에서 귀화한 상곡마씨와 관련된 고문서로,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보인다. 이 교지들은 경남 합천·함안·창원·거창·함양 등지에 많이 살고 있는 상곡마씨의 문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하백 및 마두원의 교지류는 2015년 1월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88호 『상곡마씨교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정보다 기존 지정문화재에 목록만 추가하여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1. 창원 보은사 청자발우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창원 보은사 청자발우」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창원 보은사 청자발우」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창원 보은사 주지
- (2) 신청문화재명 : 청자발우
 -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길
 - 수 량 : 4점
 - 시 대 : 고려시대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창원 보은사 청자발우는 태안 대섬에서 발견된 발우와 기형, 문양, 굽 형태 등이 유사하며, 발우의 용량과 크기로 보아 둘 혹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발우가 섞여 한 조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된다. 은사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발굴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지정 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2. 반야바라밀다심경판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반야바라밀다심경판」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반야바라밀다심경판」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송○○
- (2) 대상문화재명 : 반야바라밀다심경판
 - 소 재 지 :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
 - 수 량 : 1점
 - 시 대 : 미상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이 동제경판을 소장하게 된 것은 신청자와 동료였던 중국 교포에게서 구입한 것이며, 그 역시 고물상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전한다.

동판에 각각 반야바라밀경의 경문과 변상도를 조각한 후 서로 등을 맞대어 붙이고 네 귀퉁이에 금속판을 부착하였다. 경면은 일그러져 있으며, 경판 가장자리도 충격 등으로 인해 찢겨 있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검은 칠을 입힌 것으로 보이며 변상도 면은 인위적으로 흙은 발라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제 경판은 1238년 고려 대장도감에서 제작한 대장경판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며, 이를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3. 창원 해림사 발형 삼층석탑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발형삼층석탑」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발형삼층석탑」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 해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발형삼층석탑
 -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248
 - 수량 : 1기
 - 시대 : 미상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창원 해림사 발형삼층석탑은 자연석으로 쌓은 탑신부 및 다른 석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개석이 올려놓고 있는 등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는 다른 형태를 지닌 탑이다.

따라서 석탑의 양식이나 조성연대를 언급할 수 없는 특이하게 조합된 석탑이기에 문화재로의 지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4. 하동 산불사 석조지장보살좌상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석조지장보살좌상」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하동 산불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석조지장보살좌상
 - 소재지 :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 수량 : 1구
 - 시대 : 미상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산불사 석조지장보살좌상의 재질은 반암계열의 석재이며, 두건을 쓰고 보주를 쥐고 있는 모습에서 지장보살상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상은 두건을 쓴 상과 그렇지 않은 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건을 쓴 상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고려후기부터 나타난다. 이후 조선 16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잘 볼 수 없고 대신 두건이 없는 지장보살상이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산불사 像은 늦어도 조선 중기 제작의 상으로 봐야 하지만 그 표현에서 일반적인 조선시대 상의 모습과 다르다. 긴 얼굴과 선명히 조각되지 않은 눈, 코, 입, 귀를 가린 두건과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상은 민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발이 흘러내린 듯한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대의 위에 천의를 걸치고 천의자락은 복잡하게 양 손목을 감싸거나 두 갈래로 나뉘는 등 흔히 볼 수 없는 조형이다. 얼굴에 비해 좁은 어깨와 지나치게 크게 큰 손 등 비례가 맞지 않고 사실성이 떨어진다. 이는 불상을 만들 때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으로 짐작되며, 제작시기는 근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장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불상의 원소재지와 제작 및 전래 등이 불명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료와 연구 보완이 필요하여 현 상태로는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5. 창원 황용사 목조석가모니불상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목조석가모니불상」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목조석가모니불상」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 해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발형삼층석탑
 -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수량 : 1구
 - 시대 : 미상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창원 황용사 목조석가모니불상은 대좌와 불상이 일체형을 이루며 하나의 나무로 만든 일목조 제작이다. 대좌는 양측의 높이가 달라 향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불상도 대좌 한가운데 있지 않고 향우측의 무릎이 대좌 밖으로 나와 있어 좌우 대칭을 이루는 반듯한 모습이 아니다. 이는 제작과정상의 결함으로 추측된다. 넓적하고 살이 오른 장방형의 얼굴에 비해 육계는 너무 낮아 중간계주만 돋보여 머리 정상부의 비율이 맞지 않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 불상은 제작자의 불상조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그 제작 시기는 현대일 가능성이 높다.

창원 황용사 목조석가모니불상은 1987년 4월 석암 큰스님께 받은 것이라 하나 보다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며 특히 복장공은 있으나 복장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불상 제작 및 전래 등이 불명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

16. 밀양 수덕사 불화 도 문화재 지정 신청

가. 제안사항

- 「밀양 수덕사 불화」의 도 지정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나. 제안사유

- 「밀양 수덕사 불화」에 대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밀양 수덕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지장보살시왕도, 신중도, 독성도, 칠성도 각 1점
 - 소재지 :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 수량 : 4점
 - 시대 : 20세기
- (3) 신청내용 : 도 문화재 지정 신청
- (4) 신청인 의견 :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코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

전국 시도 문화재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불임〉 목록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현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화 중 하한시기에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시찬의 현존 작품 중 말기에 해당하는 작품인 점에서 현재로서는 문화재 지정 조건에 불충분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위원 7명 : 제적 7(제적인원 의견 일치)